대학가는 신종플루 '사각지대'

확진환자 발생 소속 학과에만 알려

수천명 생활 기숙사 발열체크 안해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도 확진 및 의심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학내 및 학생 간 신종플루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함에도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A대학의 경우 이달 초 확진 환자 2명과 의심환자 3명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중 한 명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으로 개학 후 입실 이틀 만에 발열증세를 보였다.

이에 대학측은 해당 학생의 학과와 수업을 받는 강의실 및 주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검진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환자 발생 사실을 일반 학생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아 수일 후 주변 학생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대다수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자칫 집단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수천명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특성을 감안, 입실 전 반드시 취해져야 할 전체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와 발열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측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 대처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 B대학에서도 최근 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 대학도 환자 발생과 동시에 해당 학과, 환자와 같은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후 조치에 나섰으나 대학 전체에 환자 발생 사실을 공표하지는 않았다.

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은 수업은 물론 도서관, 어학실, 휴게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집단으로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학과나 동일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만 국한해 검진을 받는 것은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같이 대학들이 확진 환자 발표와 대처에 소극적인 이유는 학교의 이미지 실추, 수시 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이나 부모들의 지원 기피 현상 등을 우려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적은 대학들은 개학 초기 전체 학생에 대한 발열 점검과 해외 여행 여부를 점검했으나 상당수 종합대학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옛 도청 원형 보존" 오체투지 시위 15일 '5·18사적지 원형 보존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대책위' 회원 등 50여명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촉구하며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하며 시위를 벌였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쓰레기 업체 특혜·뇌물

남구청 공무원 2명 입건

광주남부경찰

광주남부경찰은 15일 쓰레기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남구청 공무원 이모(44)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원 윤모(42)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2차례에 걸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공개입찰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윤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60만원과 자동차 기름 2천200ℓ(시가 340만원)를 제공받은 혐의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경찰의 조사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수사내용을 흘리고 있다. 검찰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부서직원 윤씨도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3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공개 선정했으나 부적격 논란이 일어 재심사를 통해 업체를 다시 선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해남군청 공무원 뇌물 의혹

"수백만원 받았다" 첩보

경찰, 물증 확보에 주력

해남군청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해남군 공무원 A(49)씨 등 2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최근 업자 B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의혹 단계"라며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채무자 감금 폭행 조폭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15일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조직폭력배 곽모(34)씨를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심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광주시 봉선동 한 사무실에서 황모(48)씨를 폭행하고 7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신종플루 환자 1주일 새 3배 급증

광주·전남 427명 … 거점병원 환절기 대책 마련 '비상'

전국 1만명 넘어서

광주·전남지역 신종플루 환자가 1주일새 3배 이상 급증하면서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 내 거점치료병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환절기 입원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진이나 다른 입원환자들에게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이는 병원 의료 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이 지역 신종플루 확진 환자 수는 모두 472명이며 이 중 4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130명이었던 확진 환자 수가 1주일새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주가 176명(입원환자 2명), 전남은 296명(입원환자 2명) 등이다. 현재까지는 입원환자들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중증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첫 환자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자 누계는 13일 현재 9천968명으로 집계돼 14일 발생한 환자까지 더한다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환자가 크게 늘어나자 광주시는 이날 박광태 시장 주재로 '거점병원장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들은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 환자가 급증할 경우 병원 의료체계에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영진 전남대병원장은 "이동검진차를 활용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치료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이라며 "겨울철이 되면 환자들의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도 높아져 별도의 실내 공간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대병원 이동검진차에서 진료를 받은 861명 중 10%에 해당되는 86명이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됐다.

조남수 조선대병원장은 "겨울철에 신종플루와 독감이 혼합되면 신종플루를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추석 때 신종플루가 확산될 것을 염려해 추석 전까지 시내버스 정류장 30곳에 간이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입원 환자끼리 몸싸움

화순에서 50대 숨져

입원실 사용문제 시비

화순의 한 병원에서 입원환자끼리 몸싸움을 벌이다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순군 모 병원에서 입원환자인 강모(50)씨와 조모(54)씨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조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2일 결국 숨졌다.

강씨와 조씨는 올해 초 각각 알코올성 질환과 지적 장애 등으로 입원한 뒤 같은 병실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두 환자가 입원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조씨가 강씨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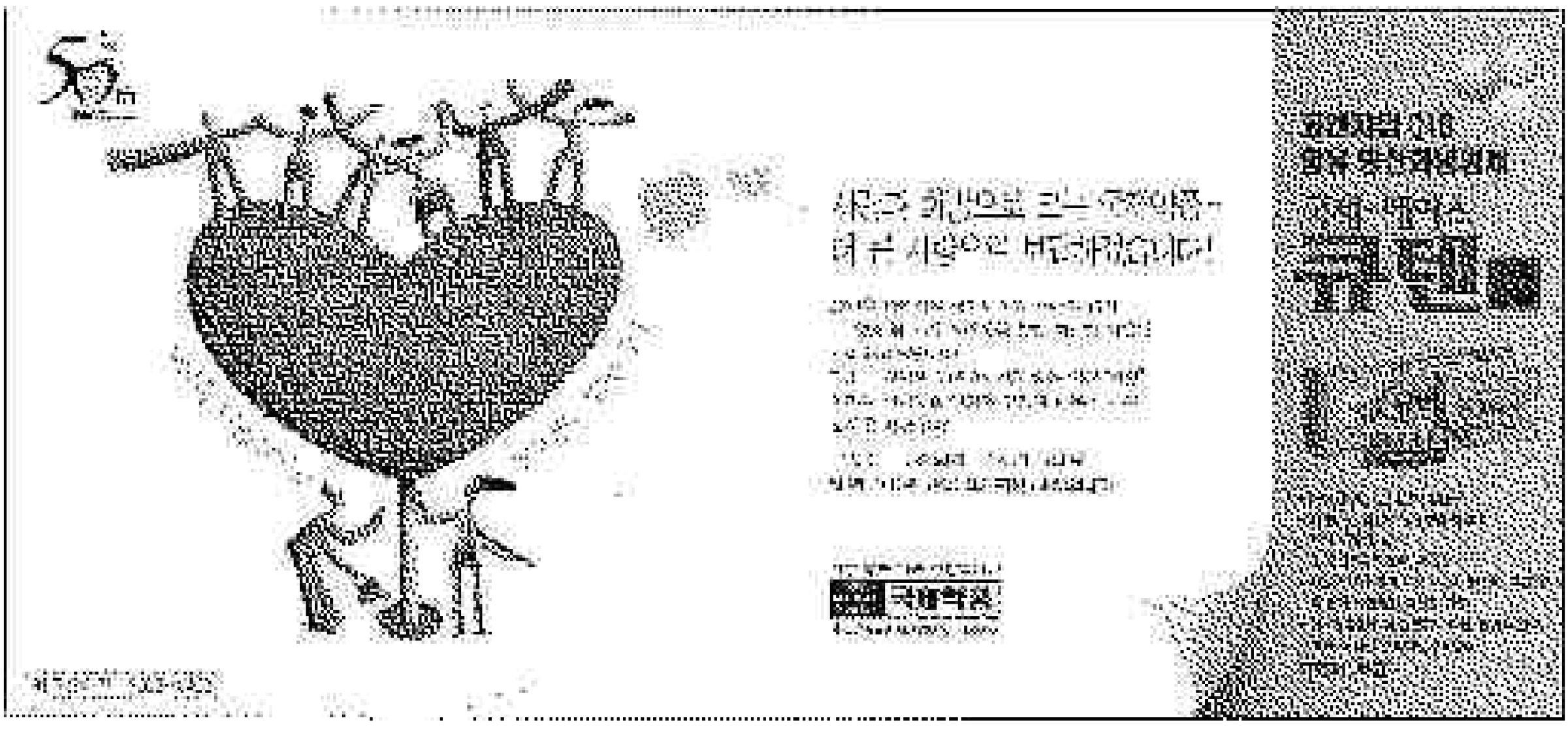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동물원 돌팔매질…범인은 코끼리?

쌍나팔

○…코끼리가 코로 던진 돌멩이에 사람이 맞아 다쳤다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 파악에 '골머리'.

○…서울 광진경찰은 15일 김모(여·48)씨로부터 "전날 오전 어린이대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코끼리가 코로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김씨는 경찰에서 돌이 날아온 방향이 코끼리 우리 안쪽이었으며 코끼리 한 마리가 코를 말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점,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코끼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하지만 사고 현장이 CC-TV의 사각지에 위치해 '범행 장면'이 기록되지 않은 데다 목격자도 없어 '코끼리 돌팔매'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연합뉴스